

지방선거를 의식한 추경 편성으로 물가를 자극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4.15.(수) 조선일보는 「집값 하락 막고 있는 두 남자…선거에 밀려나는 ‘내집’ 꿈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(물가 상승) 시대에 돈 풀기 재정정책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”면서, “지출 규모를 더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”하여 “시중에 풀리는 돈은 더 늘어나게 됐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 - 또한 전문가들은 “박홍근 장관의 재정지출 확대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를 풀이”한다며, “박 장관은 고유가 타격과 관련이 없는 현금 지원을 추경에 함께 넣어 선거 표심을 매수하려 했다고 비판” 받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- 추경 편성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이며 고유가 타격과 관련이 없는 현금 지원사업이 반영됐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 - 금번 추경에는 고유가·고물가 이중고로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과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 등 필요한 계층에 필수적인 지원을 반영했습니다.
 -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이 고유가 부담, 물가상승·경기둔화로 서민·중산층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한 선제적 지원입니다.

○ 한은·KDI 등 연구기관¹⁾, 국회 예산정책처²⁾, 민간기관³⁾ 등도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선 조기 대응이 필요하고, 금번 추경 편성을 통해 성장률도 0.2~0.3%p 제고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

- * 1) 이창용 한은총재(26.4.10) "이번 추경은 부채가 아니라 초과세수를 활용해 긍정적"
- 2) 국회 예산정책처(4.1) "유가·환율 급등 충격이 국내경제 전반으로 확산돼 추경안 편성은 불가피. 추경으로 26년 경제성장률 0.21%p~0.29%p 증가"
- 3) 씨티은행(4.1) "4분기에 걸쳐 경제성장률을 0.18~0.36%p 가량 올릴 것"

□ 또한 금번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지 않다는 것이 한국은행, KDI 등 주요 기관들의 평가입니다.

- * 한은 서면답변(3.15) "추경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"
- * KDI·조세연 등 연구기관(3.12, 비상경제TF) "'취약 부문에 잘 타겟팅한 추경은 금리·환율·물가 등 부작용은 제한적. 거시경제·금융·외환시장 안정 기여"

○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은 민간자금이 납세자에서 지출 대상으로 이전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는 제한적이라고 평가됩니다.

- * 한은총재 후보자 서면 답변(4.13) "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활용. 민간자금이 납세자로부터 정부지출 대상으로 재분배되는 것이어서 통화량은 중립적"

담당 부서	예산실 예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애 (044-214-2330)
		담당자	사무관	고영록 (koyr@korea.kr)

